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1년 11월 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강명수 정보통신정책과장(02-2110-4801), 박중수 사무관(4796)

10월 IT수출은 137.9억 달러, 1~10월간 수출은 1,312억 달러 기록

– '11년 3분기 휴대폰 및 스마트폰 세계 1위 지속,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증가 회복 및 시스템반도체 호조 지속

지식경제부는 10월 IT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2.2% 감소한 137.9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4일 밝혔다. 10월 IT수출은 작년 10월의 수출 호조(141억 달러, 역대 최고치)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 일수 감소(△1일)로 소폭 감소했으나, 하루 평균 수출은 평균 6.1억 달러로 전년 10월(평균 6억 달러)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그간 부진했던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시스템반도체 등 융합부품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었다.

이로써 지난달에 이어 월간 사상 3번째 많은 수출을 기록하였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1,312억 달러(3.1%↑)로 동기간(1~10월) 최대 수출을 달성하였다.

※ 작년 10월 IT수출은 감소세이던 휴대폰 수출이 증가를 회복되면서 월간 사상 최대인 141억 달러 기록

IT산업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2011년		2010년	
		10월[P]	1~10월[P]	10월	1~10월
수 출	전체산업	473.6 (9.3)	4,626.4 (21.4)	433.4 (27.6)	3,809.8 (29.8)
	IT산업	137.9 (△2.2)	1,312.1 (3.1)	141.0 (17.2)	1,273.0 (30.0)
수 입	전체산업	430.7 (16.4)	4,361.5 (25.9)	370.0 (21.7)	3,464.9 (32.9)
	IT산업	67.2 (△2.7)	680.5 (10.3)	69.1 (22.0)	616.8 (21.4)
수 지	전체산업	42.9	264.9	63.4	344.9
	IT산업	70.7	631.6	71.8	656.2

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패널(29.2억 달러, 1.1%↑)수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하였고, 반도체(43.5억 달러, △4.5%) 수출은 소폭 감소하였다. 디스플레이 패널은 일본, 대만 등 경쟁업체 감산과 對중국 수출 회복으로 8개월 만에 수출 증가세를 회복하였고, 시스템반도체(20.3억 달러, 34.8%↑)는 3개월 연속 20%가 넘는 수출 증가를 기록하며 메모리반도체(18.1억 달러, △26.0%) 수출 부진을 상쇄하였다.

※ 패널 수출 증가율(%) : ('11.1) 4.0 → (3) −3.3 → (5) −7.0 → (7) −21.2 → (9) −3.7 → (10) 1.1

TV(6.2억 달러, 0.1%↑) 수출은 3D TV, 스마트 TV 등 프리미엄 제품 수출 증가로 4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어갔다. 태블릿PC는 글로벌 업체의 특허 견제에도 불구하고 2.2억 달러 수출로 전년 동월대비 75.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휴대폰(19.1억 달러, △28.0%) 수출은 국내 업체의 글로벌 생산 확대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국내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세계 시장점유율 등)은 더욱 강화되어, '11.3분기 국내 업체의 스마트폰 세계 시장점유율은 27.5%로 '11.2분기 대비 4.3%p 상승하며, 2위 미국과의 점유율 격차(8.6%p)를 벌렸다. 또한, 휴대폰 점유율도 28.5%(출하량 기준, 잠정)로 세계 1위를 수성하였다.

'11.3분기 주요 업체별 세계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 대, %)

스마트폰		11.3Q		11.2Q		휴대폰	11.3Q		11.2Q	
		출하량	증감률	출하량	증감률		출하량	증감률	출하량	증감률
1	삼성전자	27.8	(270.7)	19.2	(519.4)	노키아	106.6	(−3.4)	88.5	(−20.3)
2	애플	17.1	(21.3)	20.3	(141.7)	삼성전자	88.0	(23.2)	74.0	(16.0)
3	노키아	16.8	(−36.6)	16.7	(−29.8)	LG전자	21.1	(−25.7)	24.8	(−19.0)
4	RIM	11.8	(−4.8)	12.5	(11.6)	ZTE	18.5	(32.1)	19.6	(86.7)
5	소니에릭슨	6.2	(55.0)	4.5	(164.7)	애플	17.1	(21.3)	20.3	(141.7)
6	모토롤라	4.8	(26.3)	4.4	(63.0)	Huawei	14.2	(105.8)	13.9	(107.5)
7	LG전자	4.4	(300.0)	6.2	(588.9)	RIM	11.8	(−4.8)	12.5	(11.6)
국내업체		32.2	(274.4)	25.4	(535.0)	국내업체	111.1	(8.9)	101.2	(4.7)
세계 시장점유율		27.5%		23.2%		점유율*	28.5%(잠정)		28.3%	
2위 국가 점유율		18.9%(8.6% 격차)		22.7%(0.5% 격차)		2위 점유율	27.3%(1.2% 격차)		24.7%(3.5% 격차)	
전체		117.0	(44.4)	109.5	(75.5)	전체	389.9	(14.2)	358.0	(11.9)

자료 : SA 2011.10

주) 휴대폰 세계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NIPA 추정) 3사 기준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66.0억 달러, 9.8%↑), 중남미(7.2억 달러, 2.5%↑), ASEAN(14.0억 달러, 11.0%↑) 등 개도국 수출은 증가했으나, 일본(6.6억 달러, △6.0%), 미국(15.7억 달러, △18.5%), EU(12.5억 달러, △32.0%) 등 선진국 수출은 감소하였다.

'11년 10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반도체		패 널		휴대폰		전 체	
전체	43.5	(△4.5)	29.2	(1.1)	19.1	(△28.0)	137.9	(△2.2)
중국(홍콩포함)	23.0	(△2.9)	21.8	(14.0)	4.1	(△9.0)	66.0	(9.8)
미국	1.7	(△47.3)	0.2	(△56.1)	8.1	(△25.6)	15.7	(△18.5)
일본	2.4	(△22.4)	0.3	(△76.3)	1.3	(148.6)	6.6	(△6.0)
EU	2.0	(△45.0)	3.4	(△17.9)	2.1	(△48.8)	12.5	(△32.0)

한편, IT수입은 전자부품(40.7억 달러, △0.2%), 컴퓨터 및 주변기기(7.2억 달러, △9.8%) 등 주요 품목의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2.7% 감소한 67.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IT수지는 전체 산업 흑자(42.9억 달러)를 상회하는 70.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 수지 흑자에 기여하였다.

최근 IT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EU·미국 등의 경기 부진과 휴대폰 해외 생산 확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력 제품의 단가 하락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증가 회복, 일본·대만 등 경쟁 업체의 메모리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감산 발표,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효과 등으로 업황은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붙임 : 세부자료>

< 세부자료 >

목 차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5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35

3. 수입 및 수지 동향 38

4. 2011년 10월 I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40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1 휴대폰(부분품 포함)

1) 시장 환경

▶ 시장조사기관 SA는 '11년 세계 휴대폰 시장을 글로벌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 증대로 당초 전망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 13.3% 성장 예상

○ 신흥시장과 스마트폰, 저가폰 중심의 시장 성장이 지속될 전망

※ 휴대폰 시장 세부 품목별 성장률 전망(SA, 2011.4, 출하량 기준) : (저가폰) 10.3%, (피처폰) -1.6%, (스마트폰) 45.3%

※ 휴대폰 지역별 성장률 전망(SA, 2011.9, 출하량 기준) : (북미) 7.4%, (서유럽) 1.2%, (아태) 15.9%, (중남미) 27.3%, (동유럽) 5.0%, (중동/아프리카) 15.9%

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

(단위 : 억 대, %)

구분 (억대, %)	기존 전망('11. 6월)			수정 전망('11. 9월 전망)				2011년 비교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12	
세계시장	11.7	13.6	15.5	11.9	13.6	15.3	16.3	0.4%p↓
증감률	-0.6%	16.3%	13.7%	-0.6%	13.8%	13.3%	6.2%	

자료 : SA 2011.6, 2011.9

▶ 안드로이드 등 범용OS 비중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의 HW 성능의 차별화(LTE, HD, Quad Core 등)가 가속화되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중국,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이 휴대폰 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상

○ 범세계적인 LTE 서비스 확대로 LTE 폰과 스마트폰의 컴퓨팅 능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Quad Core 스마트폰이 차별화 포인트로 부상할 전망

○ 일본, 북미, 서유럽 선진시장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50%를 넘어선 반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흥시장이 Key 마켓으로 떠오를 전망

※ 스마트폰 보급률(%, '11.상반기, IDC) : (일본) 69, (북미) 52, (서유럽) 49, (동유럽) 23, (중남미) 15, (중동/아프리카) 15, (아태) 23, (전세계 평균) 29

▶ '11.3분기 업체별 실적을 종합하면, 노키아/RIM 쇠락, 애플, 삼성전자 및 중국 업체의 약진, HTC/LG전자의 점유율 점진적 상승으로 요약

○ 3분기 국내 업체는 스마트폰, 휴대폰 출하량을 274%, 8.9%로 확대시키며 각각 세계 시장점유율 27.5%, 28.5%(추정)를 기록하며 세계 1위 위상 지속

- 특히, 스마트폰은 2위 미국(애플, 모토롤라 등)과의 세계 시장점유율 격차를 '11.2분기 0.5%에서 8.6%로 확대

○ 중국 저가폰 업체인 ZTE와 Huwei는 중국,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중고가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제품 영역을 확대

○ 반면, 노키아와 RIM은 OS 및 모바일 생태계 경쟁력 약화로 세계 시장점유율 감소 지속

※ 스마트폰 세계 시장점유율('11.1Q→2Q, %) : (노키아) 15.3→ 14.4, (RIM) 11.4 → 10.1

'11.3분기 주요 업체별 세계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 대, %)

스마트폰		11.3Q		11.2Q		휴대폰	11.3Q		11.2Q	
		출하량	증감률	출하량	증감률		출하량	증감률	출하량	증감률
1	삼성전자	27.8	(270.7)	19.2	(519.4)	노키아	106.6	(-3.4)	88.5	(-20.3)
2	애플	17.1	(21.3)	20.3	(141.7)	삼성전자	88.0	(23.2)	74.0	(16.0)
3	노키아	16.8	(-36.6)	16.7	(-29.8)	LG전자	21.1	(-25.7)	24.8	(-19.0)
4	RIM	11.8	(-4.8)	12.5	(11.6)	ZTE	18.5	(32.1)	19.6	(86.7)
5	소니에릭슨	6.2	(55.0)	4.5	(164.7)	애플	17.1	(21.3)	20.3	(141.7)
6	모토롤라	4.8	(26.3)	4.4	(63.0)	Huawei	14.2	(105.8)	13.9	(107.5)
7	LG전자	4.4	(300.0)	6.2	(588.9)	RIM	11.8	(-4.8)	12.5	(11.6)
국내업체		32.2	(274.4)	25.4	(535.0)	국내업체	111.1	(8.9)	101.2	(4.7)
세계 시장점유율		27.5%		23.2%		점유율*	28.5%(잠정)		28.3%	
2위 국가 점유율		18.9%(8.6% 격차)		22.7%(0.5% 격차)		2위 점유율	27.3%(1.2% 격차)		24.7%(3.5% 격차)	
전체		117.0	(44.4)	109.5	(75.5)	전체	389.9	(14.2)	358.0	(11.9)

자료 : SA 2011.10
주) 휴대폰 세계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NIPA 추정) 3사 기준

2) 수출 여건 및 수출 증가 원인

▶ 국내 업체의 스마트폰 등 프리미엄 제품의 글로벌 생산 확대는 휴대폰 수출 증가에 부정적 요인

○ 국내 업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스마트폰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리미엄 제품을 포함한 해외 생산 물량의 전략적 증산 추진

- 이에 따라, 스마트폰의 해외생산도 급격히 증가

※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비중(%) : ('10) 3.5 → ('11.1Q) 19.3 →(2Q) 36.0 → (3Q^{e}) 60% 초반

- 반면, 국내 휴대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대비 29.2% 감소

○ 이는 국내 휴대폰 산업이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휴대폰 및 스마트폰 수출이 감소한 직접적인 원인

○ 점차 스마트폰 스펙 및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휴대폰 산업의 경쟁 우위 지속을 위해서 글로벌 생산체계는 점차 강화될 전망

※ 노키아, 애플, 모토롤라 등 해외 경쟁사는 90% 이상을 해외 및 외주를 통해서 생산 (애플은 전량 외주로 생산, 모토롤라는 전량 해외(중국) 생산, 노키아 및 소니에릭슨은 출하량의 90% 이상을 해외 생산)

국내 업체의 국내, 해외 출하 비중 추이

(단위 : 백만 대, %)

구분	2008	2009	2010	2011.1Q	2Q	3Q
글로벌 출하	297.4	354.8	406.1	95.7	101.2	111.1
(증감률)	(23.1)	(19.3)	(14.5)	(2.4)	(4.7)	(8.9)
국내 출하	162.7	147.9	146.6	35.4	28.1	25.2
(증감률)	(3.4)	(−9.1)	(−0.8)	(−1.3)	(−24.9)	(−29.2)
해외 출하	134.7	206.9	259.5	60.3	73.1	85.9
(증감률)	(59.9)	(53.6)	(25.4)	(4.6)	(23.4)	(29.3)
해외출하비중	45.3%	58.3%	63.9%	63.1%	72.2%	77.3%

자료 : SA, 통계청 2011.10,

3) 수출 동향

▶ 10월 휴대폰 수출은 해외 생산 강화와 전년 동월의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

※ '10.10월 휴대폰 수출은 '10.1~9월까지 월 평균 20.5% 감소했으나 '10년 처음으로 수출 증가세 시현

○ 스마트폰(9.3억 달러, △13.9%)과 피처폰(3.1억 달러, △55.1%)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지역별) 일본(1.3억 달러, 148.6%↑)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된 반면, 미국(8.1억 달러, △25.6%), EU(2.1억 달러, △48.8%), 중남미(0.1억 달러, △29.5%), 중국(홍콩포함, 4.1억 달러, △9.0%) 수출은 감소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10	11	12	'11.1	2	3	4	5	6	7	8	9	10
휴대폰 (부분품 포함)	26.5 (2.9)	26.8 (8.9)	22.4 (21.7)	23.8 (11.9)	19.8 (5.6)	21.7 (5.8)	23.1 (31.6)	24.4 (38.9)	22.2 (17.9)	21.8 (15.1)	20.7 (10.2)	20.4 (△3.1)	19.1 (△28.0)
스마트폰	10.8 (268.1)	11.8 (240.5)	10.2 (349.2)	9.5 (454.9)	9.2 (398.6)	8.3 (262.1)	12.2 (519.3)	12.6 (325.8)	10.0 (99.4)	7.6 (41.7)	6.7 (6.8)	8.5 (2.9)	9.3 (△13.9)
피처폰	7.0 (△45.0)	6.7 (△45.3)	5.1 (△40.2)	4.9 (△47.8)	3.9 (△57.3)	4.3 (△57.5)	3.1 (△64.1)	3.7 (△46.6)	3.5 (△49.1)	3.2 (△44.9)	2.4 (△48.7)	2.5 (△40.8)	3.1 (△55.1)
부분품	8.8 (△13.9)	8.4 (△6.5)	7.1 (△6.7)	9.4 (△7.8)	6.7 (△14.8)	9.1 (11.7)	7.8 (12.9)	8.2 (5.6)	8.6 (26.0)	10.9 (41.5)	11.6 (48.3)	9.4 (9.9)	6.7 (△23.7)

2 반도체(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1) 시장 환경

▶ '12년 반도체 시장은 재고 소진, 런던 올림픽 특수, 모바일 기기 등 IT 제품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확대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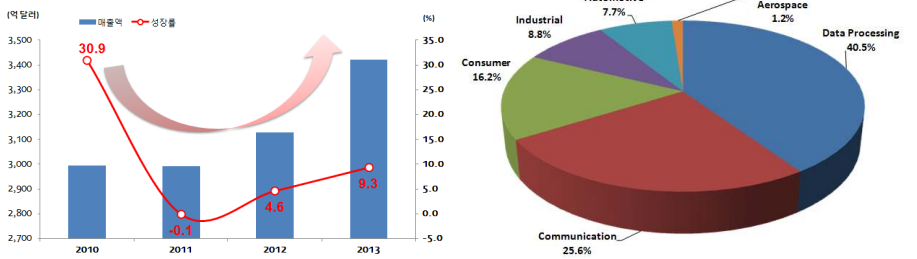
○ Gartner('11.9)에 따르면 2011년 반도체 시장은 D램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하여 3,000억 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 반도체 수요처별 비중은 Data Processing 40.5%, Communication 25.6%, Consumer 16.2%, Industrial 8.8%, Automotive 7.7% 등을 차지하였으며, Data Processing과 Communication 분야가 반도체 수요처의 66.1%를 차지

○ '12년 반도체 시장은 재고 소진으로 4.6% 성장한 3,129억 달러가 예상되며, '13년에는 3,422억 달러로 회복국면에 접어들 전망

반도체 시장 전망

매출액 전망 / 수요처별 시장 비중(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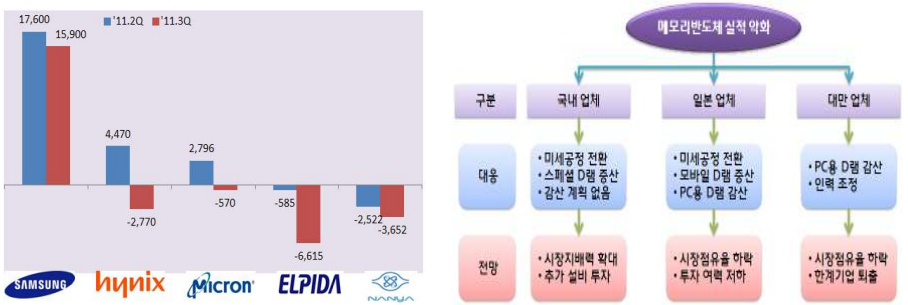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11.9

▶ 전 세계 주요 메모리반도체 업체 3분기 실적 집계결과,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 여파로 적자 기록

※ 글로벌 경기침체 가속화와 PC 시장 수요 부진으로 인한 D램 가격 하락 지속이 업계 실적 악화의 주요인

주요 반도체 기업 분기별 영업 손익(단위: 억원)



자료 : 한국경제 자료 재가공, NIPA, 2011.10
주 : 2분기는 9월 30일, 3분기는 10월 27일, 원화환산 기준

○ 삼성전자는 반도체부문에서 3분기에 1조 5,9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메모리반도체 업계에서 유일하게 흑자 유지

※ 미세나노 공정 비중을 높이고 모바일D램, 시스템LSI 등 고부가 영역에 집중한 결과

○ 하이닉스는 매출 2조 2,910억 원, 영업 손실 2,770억 원, 영업이익률은 -12%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2분기 이후 9분기 만에 영업 손실을 기록

○ Micron은 회사기준 회계연도 2분기 실적(6월 3일~9월 2일)에서 21.4억 달러 매출에 5,100만 달러 영업 손실을 기록

※ Micron은 D램 시황에 따른 노출이 적고 D램 30%, 낸드플래시 40%, 노어플래시 10% 등 제품군이 다양해 영업 손실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분석

○ Elpida는 3분기(Elpida 회계기준으로 2분기) 매출 640억 엔, 영업 손실은 450억 엔(6,615억 원), 영업이익률 -70%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2분기(영업 손실 585억 원)에 비해 적자규모가 10배나 증가

※ Elpida는 지난해 1~3분기 15.8~25.6%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지만 4분기 -27.7%로 적자 전환, 올해는 1분기 -5.6%, 2분기 -4.0%, 3분기 -70%로 실적이 급락 추세

○ Nanya는 매출 73.2억 대만 달러, 영업 손실 98.2억 대만 달러를 기록해 영업이익률 -134% 기록

※ Innotera와 Powerchip도 각각 -77%와 -72%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감산 및 퇴출압박 더욱 심화

▶ 메모리반도체 침체와 모바일산업 성장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강화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

○ 메모리반도체는 앞선 미세공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면서 타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욱 확대할 전망

※ 일본, 미국, 대만 등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는 공정 전환 지연으로 이어져 경쟁력 악화의 악순환으로 반복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기업과의 격차 확대로 이어질 전망

○ 제품구성도 모바일·그래픽·서버용 D램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차별화된 제품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

※ 스페셜 D램은 일반 PC용 D램에 비해 가격이 높으면서 가격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

○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고성능·저전력 모바일 AP, DDI, 스마트카드IC, 모바일 CIS 등의 모바일 반도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점차 D-TV, 자동차용 반도체 등으로 외연 확대 중

※ 삼성전자는 2010년 순수 모바일 AP 시장점유율 62.6%(금액기준)로 세계 1위를 기록(iSuppli, ZDNet 재인용)

○ 파운드리 분야(Analog·Logic)에서도 신규 대형 거래선 확대로 점차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전망

2) 수출 여건

▶ 반도체 시장 부진을 주도하고 있는 D램은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 등의 수요확대로 보합세

○ '10년 말부터 공급과잉이 시작되면서 대표적 PC용 D램인 DDR3 1Gb 가격이 올해 1월 1달러 선이 무너진 이후 10월에는 0.5달러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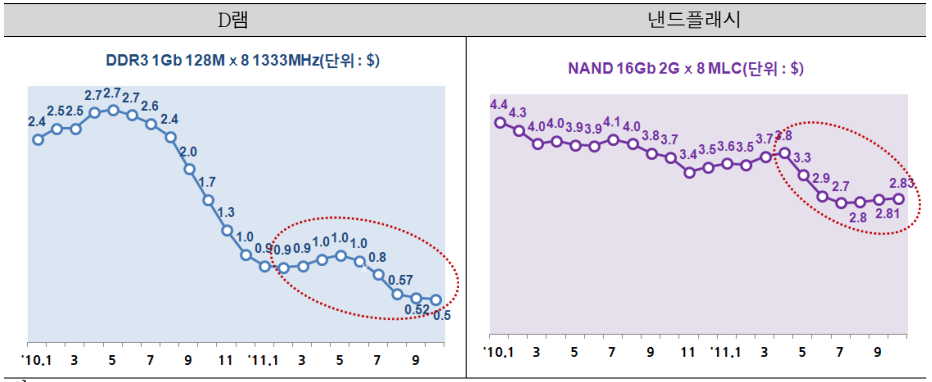
※ 반도체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의 1Gb DDR3 D램의 제조원가는 0.8~1.1달러인 반면 대만과 일본 업체들은 1.2~1.5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을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

○ 이처럼 반도체가격이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우려 등으로, PC와 노트북 등 완제품 수요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

○ 글로벌 반도체 공급과잉으로 반도체 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대만의 Nanya, Powerchip, Innotera에 이어 일본 Elpida도 20% 감산한 가운데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감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특히 Elpida의 부진은 대만의 D램 업체인 Powerchip의 반도체 부분과 Rexchip (Elpida와 Powerchip의 합작사)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전망

메모리반도체 가격 동향



자료 : DRAMeXchange, 2011.10

▶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D램과 낸드플래시간 시장 격차가 축소 추세

○ PC에서 모바일로 컴퓨팅 환경이 급변하면서 Desktop PC 등에 사용되는 D램은 시장은 점차 축소되는 반면, 스마트폰·태블릿PC·SSD·서버·울트라 북 등에서 낸드플래시 수요증가는 지속

○ '11년 D램은 전년대비 18.4% 감소한 32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나, 낸드플래시는 17.7% 증가한 222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며, 2013년에는 D램 290억 달러, 낸드플래시 242억 달러로 낸드플래시가 D램 시장의 84%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

▶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낸드플래시 장비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D램 반도체를 추월했다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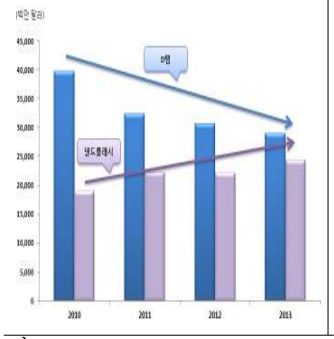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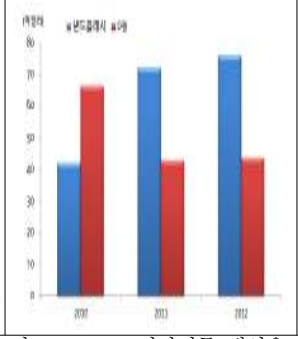
※ 낸드플래시 장비 투자 : '10년 42억 달러 → '11년 72억 달러 → '12년 76억 달러

※ D램 반도체 장비 투자 : '10년 66억 달러 → '11년 43억 달러 → '12년 44억 달러

○ 스마트기기 수요 증가로 낸드플래시 생산 확대를 위해 장비 투자는 증가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시황이 악화된 D램 반도체 투자는 크게 감소

○ 향후에도 미세공정, 수요처 대응력 등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엔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업체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서 낸드플래시 시장을 주도할 전망

D램 vs 낸드플래시 시장 및 투자 전망

메모리반도체 시장 전망	D램/낸드플래시 장비 투자 전망	낸드 플래시 수요처
		
자료 : iSuppli, 2011.9	자료 : SEMI, 전자신문 재인용(2011.10.13)	

3) 수출 동향

▶ 시스템반도체·플래시메모리 등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가격폭락과 수요부진을 겪고 있는 D램 수출이 전년 동월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5% 감소

○ D램(8.9억 달러, △45.5%) 수출은 세계적 수요 감소와 원가 이하로 떨어진 가격 추이가 지속됨에 따라 '10.12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하며 반도체 부진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09.8월(8.7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

○ 반면,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울트라 북(SSD 채용) 등의 출시와 맞물려 단가가 보합세를 기록하였으며, 수출도 전년 동월대비 35.9%, 전월대비 1.7% 증가한 2.9억 달러를 기록하며 호조세 유지

○ 시스템반도체는 모바일 AP와 CIS·DDI등의 제품 출하 확대, 패키징 등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물량증대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34.8% 증가한 20.3억 달러를 기록, 지난달에 이어 20억 달러帶의 견조한 실적 유지

▶ 향후 반도체 수출은 D램 부진(PC 등 전방산업 수요 부진 지속)이 지속되면서 낸드플래시와 시스템반도체가 견인하는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

○ 다만, 대만·일본 업체들이 D램 감산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나, 가격반등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10	11	12	'11.1	2	3	4	5	6	7	8	9	10
반도체	45.6	41.3	42.5	40.9	36.5	44.7	41.5	41.7	42.1	39.7	41.1	45.9	43.5
	(32.8)	(18.1)	(23.5)	(23.9)	(9.2)	(10.6)	(△0.6)	(△4.9)	(△3.9)	(△14.0)	(△13.4)	(△3.8)	(△4.5)
메모리	24.5	20.3	21.4	21.8	18.8	23.4	22.2	22.1	21.3	18.2	17.4	18.6	18.1
	(37.6)	(4.4)	(7.2)	(11.3)	(△2.8)	(2.6)	(△9.6)	(△15.3)	(△15.8)	(△31.1)	(△37.6)	(△30.0)	(△26.0)
D램	16.4	12.7	12.6	11.5	11.0	12.8	12.5	12.5	12.2	10.1	9.7	9.5	8.9
	(56.1)	(2.9)	(△8.9)	(△16.2)	(△14.7)	(△14.8)	(△22.2)	(△28.7)	(△27.0)	(△43.3)	(△48.3)	(△45.5)	(△45.5)
낸드	2.1	2.2	2.5	2.5	2.2	2.7	2.9	3.2	2.4	2.6	2.7	2.9	2.9
	(△8.9)	(11.0)	(39.9)	(20.8)	(8.3)	(10.9)	(13.9)	(34.7)	(1.1)	(8.4)	(9.4)	(28.2)	(35.9)
시스템반도체	15.1	15.6	15.4	13.8	12.2	15.1	13.7	14.3	15.2	15.9	17.4	21.3	20.3
	(15.1)	(25.9)	(38.5)	(36.9)	(16.4)	(22.2)	(11.5)	(10.8)	(14.8)	(12.8)	(22.1)	(39.1)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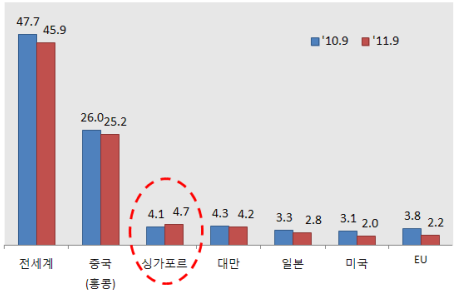
▶ (지역별) 對중국(홍콩포함)은 수출은 시스템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반도체 부진이 지속되면서 소폭 하락하였으며, 당분간 이 추세는 지속될 전망

※ 對중국(홍콩) 반도체 수출(억 달러) : ('11.1) 21.8→(3)24.4→(5)22.6→(7)21.8→(8)22.2→(9)25.2→(10)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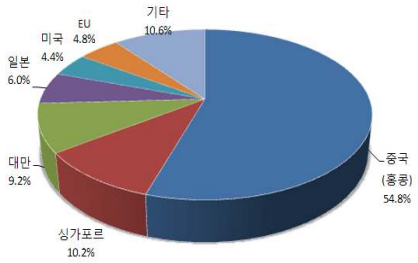
○ 한편 대만(4.4억 달러, 2.6%)은 낸드플래시 수출증가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중국(홍콩 포함, 23.0억 달러, △2.9%), 싱가포르(4.5억 달러, △3.7%), 일본(2.4억 달러, △22.4%), 미국(1.7억 달러, △47.3%), EU(2.0억 달러, △45.0%)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침체와 맞물려 부진

반도체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 및 비중('11.9월)

국가(지역)별 수출(억 달러)



수출 비중(%)



3 디스플레이 패널

1) 시장 환경

▶ 선진 수요 시장의 경기 불안 지속 등 수요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선전

○ '11년 3분기에도 공급 과잉과 선진국 수요 약세의 지속, 기대 이하의 중국 국경절 수요 등으로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실적 하락 지속

- 패널 업체들의 가동률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고 소진을 위한 TV 패널의 가격 하락 지속 등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실적 개선에 악영향

- 태블릿PC 패널의 견조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데스크톱 PC의 수요 약세로 인한 모니터 패널 수요 둔화, 노트북 패널 수요의 약세 등이 또 하나의 원인

- 다만, 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 업체들에 비해 매출 실적 감소폭이 낮으며 수익성도 앞선 상황

※ 국내 2개社/대만 2개社의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감율(%) : ('11.1Q) −6.7 / −12.3 → (2Q) −7.6 / 19.6 → (3Q) −9.8 / −14.5

○ 아날로그 방송 종료, 중국 춘절 수요 등 시장 수요 여건이 개선될 전망

- 1년 전에는 일본과 스코틀랜드에 불과했던 아날로그 방송 종료가 '11년 하반기부터 '12년 말 까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과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될 예정

- 또한 중국 춘절 수요에 대한 기대, 남미 및 동유럽 등 신흥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3D TV 등의 수요 확대, 태블릿PC 외에 슬림 노트북, 울트라 노트북 등 모바일 PC 시장의 수요 증가가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경쟁업체의 감산 등으로 '11년 2분기 이후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실적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

※ 국내 2개社/대만 2개社의 전기 대비 매출 증감율(%) : ('11.1Q) −13.2 / −6.6 → (2Q) 10.6 / 1.0 → (3Q) 1.6 / 1.8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분기별 실적

(단위 : 조원, 대만 백억 달러, %)

구 분		2011			2010			
		1Q	2Q	3Q	1Q	2Q	3Q	4Q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부문)	매출액	6.5	7.1	7.1	6.9	7.8	8.1	7.2
	증감율	−5.0	−8.6	−12.6	40.4	31.3	4.4	−1.2
	영업이익	−0.2	−0.2	−0.09	0.5	0.9	0.5	0.1
	이익률	−3.5	−3.0	−1.3	7.2	11.3	6.4	1.4
LG디스플레이 (전체)	매출액	5.4	6.0	6.3	5.9	6.5	6.7	6.5
	증감율	−8.7	−6.3	−6.4	65.9	35.2	15.1	9.8
	영업이익	−0.2	−0.05	−0.49	0.8	0.7	0.2	−0.4
	이익률	−4.5	−0.8	−7.8	13.4	11.2	2.7	−6.0
AUO (전체)	매출액	9.3	9.8	9.9	11.2	12.9	12.4	10.3
	증감율	−16.4	−23.7	−20.5	121.1	55.9	11.8	−10.7
	영업이익	−1.4	−0.9	−1.7	0.8	1.3	0.0	−1.1
	이익률	−15.3	−9.3	−17.0	7.3	10.3	0.2	−10.8
Chimei−Innolux (전체)	매출액	12.4	12.2	12.5	6.9	14.8	13.9	13.0
	증감율	−8.9	−15.9	−9.0	127.0	271.1	191.6	179.9
	영업이익	−1.4	−1.3	−	0.4	1.2	−0.3	−1.8
	이익률	−10.9	−10.6	−	6.1	8.1	−2.3	−13.6

주)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 CMI(Chimei-Innolux)는 '11년 3분기 실적 발표 전으로 월별 실적 합계
자료 : 각사 IR자료

▶ 臺-日-中 경쟁 업체들의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대한 견제 움직임 심화

○ 중소형 패널 시장 공략 가속화(日), AMOLED 패널 투자 확대(臺, 中) 등으로 국내 업체들에 대한 견제 적극적

- Panasonic(日)은 엔화 강세 등 원가 경쟁력 상실로 PDP TV 생산을 중단하고 LCD 패널 공장의 구조 조정을 단행할 것이며, 특히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된 TV 패널 대신 중소형 패널에 집중할 계획(日本經濟新聞, 2011.10.26)

- Sony, Thosiba, Hitachi 등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합작 법인인 Japan Display가 투자한 일본 산업 혁신 기구(INCJ : Innovation Network Corp. of Japan)는 Panasonic의 LCD 생산 라인(Mobara)의 인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중소형 패널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

※ 일본의 중소형 패널 시장 점유율(%) : ('10.1Q) 39.4 → (2Q) 39.3 → (3Q) 39.1 → (4Q) 39.4 → ('11.1Q) 39.7 → (2Q) 38.3(DisplaySearch, 2011.10.4)

-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대면적화를 진행하고 있는 AMOLED 시장에서 BOE(中), AUO(臺) 등이 시제품 개발 등 투자 확대 가시화

※ 우리나라의 중소형 AMOLED 패널 시장 점유율(%) : ('10.1Q) 96.8 → (2Q) 97.6 → (3Q) 98.8 → (4Q) 99.1 → ('11.1Q) 99.4 → (2Q) 99.5(DisplaySearch, 2011.10.4)

- AUO는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시제품을 공급하는 등 '12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DigiTimes, 2011.10.14)이며, BOE는 '13년 양산을 목표로 220억 위안을 투자하여 내몽골 오르도스 지역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日本經濟新聞, 2011.10.27)

- 이러한 경쟁 업체들의 움직임은 패널 시장의 기술적 변화와 시장 확대 측면에서 선점 잇점과 기술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단가 하락 등의 부정적인 요소도 공존

2) 수출 여건

▶ 국내 업체들의 공격적 전략, 제품 차별화 등은 수출에 긍정적

○ 경기 불안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내업체는 공격적인 가동률 지속

- 선진 수요 시장의 둔화 지속, '11년 3분기 적자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은 경쟁 업체들에 비해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

※ '11년 10월 현재, CMI, AUO 등의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60% 미만으로 전분기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업체들은 90%로 3분기 대비 상승 추세로 전환

- 이는 호황기 대비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선 유지, 시장 지위 강화 등의 공격적인 국내 업체들의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

○ 대만 등 경쟁 업체들에 비해 제품 차별화 전략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지속적인 출시, 신규 적용 시장의 적극적인 공략 등은 수출에 긍정적

- 국내 삼성전자는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크기의 차별화(43인치, 48인치)로 중국 국경절 수요에 공격적으로 대응

※ 경쟁 업체들의 42인치, 47인치 제품에 대비한 비슷한 가격의 '크기 프리미엄' 전략을 선택한 삼성전자는 중국 로컬 TV 제조업체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점진적인 시장 확대 추진

-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FPR 3D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는 기존 태블릿PC, 스마트폰 패널 외에 울트라 노트북(Intel) 패널을 채용하는 특화된 제품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성장 기회 마련

▶ 패널 가격 하락세 지속은 국내 디스플레이 수출 실적에 부정적

○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 따른 가동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가동률 하향 조정으로 패널 가격 하락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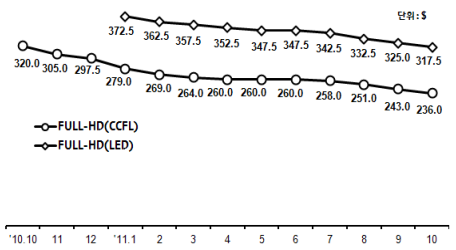
- BOE(中) 등 중국 업체들의 8세대 라인 가동 개시에 따른 공급 과잉과 세트 업체들의 보수적 재고 운영 등으로 TV 패널 가격 하락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특히, 보급형 LED TV 보급 확산 전략에 따라 LED 패널 가격도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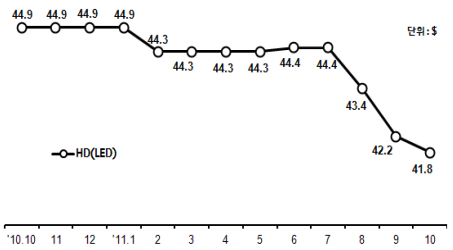
- 태블릿PC의 수요 증가와 슬림 노트북, 울트라 노트북 등 새로운 모바일 기기의 등장에 따른 기존 노트북 시장의 시장 잠식과 데스크톱 PC의 노트북 전환 구매 추세에 따른 모니터 수요 감소 등으로 7월 이후 가격 하락세

디스플레이 가격 동향(평균)

<LCD TV 패널-Full HD>



<노트북 패널-HD>



주) LCD TV 패널(32인치~47인치) 평균, 노트북 패널(10.1인치~17.3인치) 평균
자료 : Witsview, 2011.10

3) 수출 동향

▶ 10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선진 시장 수요 둔화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품 차별화 및 공격적인 전략 등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29.2억 달러를 기록

- 특히, 하반기 글로벌 경기 불안의 확산 조짐에도 불구하고 8월 이후 전월대비 수출은 증가세 시현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증감율(전월대비, %) : ('11.1월)△3.4 → (2월)△11.9 → (3월)19.5 → (4월)△2.5 → (5월)2.7 → (6월)△2.4 → (7월)△4.6 → (8월)0.0 → (9월)9.6 → (10월)5.9

▶ **(지역별)** 국경절 수요 확대로 인해 중국(홍콩포함)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북미, 서유럽 등의 주요 생산 거점인 남미, 동유럽 등은 감소

○ 10월 중국(홍콩포함)은 3D, 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 및 국경절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4.0% 증가한 21.8억 달러 기록

- 경기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선진 수요 시장인 EU(3.5억 달러, △17.9%)와 유럽 지역 생산 거점 동유럽(3.2억 달러, △19.7%), 북미 지역 생산 거점 남미(2.2억 달러, △0.9%) 수출은 감소

※ 다만, 주요 글로벌 생산 거점은 성수기 진입 등으로 7월부터 전월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11년 9월 대비 10월 수출 증가율 : 동유럽 0.2%↑, 남미 1.1%↑)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10	11	12	'11.1	2	3	4	5	6	7	8	9	10
패널	28.9	27.3	26.5	25.6	22.6	27.0	26.3	27.0	26.4	25.2	25.2	27.6	29.2
(증감율)	(8.7)	(9.5)	(0.8)	(4.0)	(△3.3)	(△4.9)	(△7.3)	(△7.0)	(△8.3)	(△21.2)	(△21.2)	(△3.7)	(1.1)
부분품	2.7	2.9	2.9	2.7	2.3	3.2	3.3	2.9	3.0	2.8	2.6	2.8	2.8
(증감율)	(4.8)	(15.6)	(7.7)	(△2.3)	(△14.6)	(△3.9)	(△9.6)	(△7.5)	(△3.8)	(△19.3)	(△14.9)	(1.2)	(4.1)

4 TV

1) 시장 환경

▶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인도 평판TV 시장

○ LCD TV 출하량의 경우 금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99%, 2분기에는 62% 증가

- 금년 1분기의 경우 '2011 크리켓 월드컵' 개최에 따른 수요 확대로 특히 높은 성장률 기록

- 금년 2분기에 판매된 제품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평판TV 크기는 22~24인치 제품으로 출하량 비중이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32인치 제품의 출하 비중은 28%

※ 인도는 22~24인치 제품 출하 비중이 높은 거의 유일한 시장

※ 타 시장에서의 22~24인치 제품 출하 비중은 평균 9% 수준

○ 금년 550만 대로 예상되는 인도 평판TV 시장이 2015년에는 2,080만 대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CAGR 39%, DisplaySearch)

- 지속적인 가격 하락과 새로운 저가 제품이 성장의 배경. 특히, 2011년 평판TV 보급률이 3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CRT TV 교체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

○ Sony,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최근 자국 기업의 출하량도 빠르게 증가

- 향후 인도 평판TV 시장은 준도시 및 시골 지역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주요 업체별 인도 평판TV 시장 점유율(2011. 2Q 출하량 기준)

순위	Brand	2011 2Q 점유율	성장률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	Sony	20.4%	0%	21%
2	삼성전자	19.5%	4%	38%
3	LG전자	17.4%	-3%	32%
4	Videocon	17.2%	-4%	192%
5	Onida	7.5%	15%	189%
	기타	17.9%	-3%	86%

자료 : DisplaySearch, 2011.10.10.

▶ 미국 평판TV 시장, 국내 기업 지배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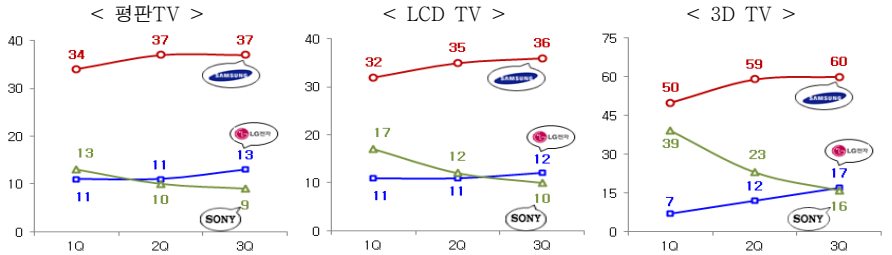
○ 한국 브랜드의 미국 평판TV 시장 점유율 상승세, 3분기에도 이어져

- 3분기 미국 평판TV 시장의 금액기준 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37%, LG전자가 13%로 각각 1, 2위를 차지하며 사상 최초로 점유율 50% 돌파

※ 3D TV 시장의 경우 LG전자 상승세와 Sony의 하락세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남

- 반면, Sony를 비롯한 일본 업체들의 하락세는 지속

Top3 기업의 미국 TV 시장 점유율 (2011년 분기별)



자료 : 각 언론사 자료 재구성(원소스: NPD)

▶ Apple, 음성인식 기술 Siri를 적용한 iTV 출시 전망

○ 최근 출간된 Steve Jobs 전기에 iTV 구상 내용이 주목받는 가운데 美 투자은행 Piper Jaffray는 Apple이 내년 말, 늦어도 2013년까지는 인터넷, i클라우드, TV를 연계하는 이른바 iTV를 내놓을 것이며 첫 제품은 1,800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이 제품에는 iPhone 4S에 사용된 음성지원기능인 Siri가 적용돼 리모콘 대신 음성으로 채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Piper Jaffray의 Apple Television 전망

구 분	2012	2013	2014
출하량(만 대)	140	250	432
평균판매가격($)	1,800	1,600	1,400
매출액(억 달러)	24.7	39.7	60.5

자료 : Piper Jaffray, 2011.10.24. 재구성

2) 수출 여건

▶ TV 왕국 일본 업체들의 침체 지속은 국내업체들의 수출 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0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Panasonic은 TV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

- 일본 대표 TV 제조업체의 하나인 Panasonic이 자국내 평판 패널 생산을 중단 및 매각키로 결정하며 자국내 TV 생산을 사실상 포기

※ 세계 최대 PDP 공장인 효고(兵庫) 현 아마가사키(尼崎) 공장 가동을 올해 안에 중단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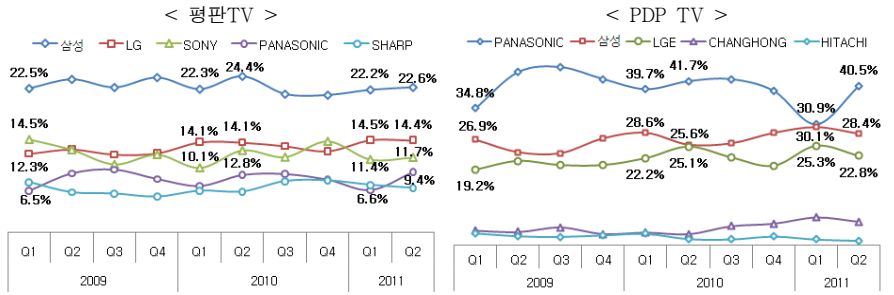
※ 지바(千葉) 현 모바라(茂原) 시의 TV용 LCD 패널 공장은 매각 예정

- 금년 2분기 매출 기준으로 세계 평판TV 시장 4위, PDP TV 시장 1위 기업인 Panasonic의 TV 사업 축소는 세계 TV 산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구조조정 이후에는 국내 기업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 Panasonic의 TV 사업 축소는 엔고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 격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배경인 것으로 분석

- 한편, Sony는 2004년부터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고 Hitachi도 올해 안에 TV 생산 중단을 선언하는 등 일본 TV 업계의 침체가 확대되는 추세

메이저 기업의 세계 TV 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 DisplaySearch, 2011.5./20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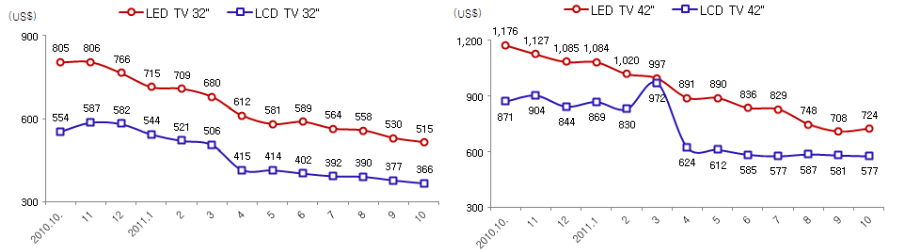
▶ 지속되고 있는 TV 가격 하락은 수출 실적에 부정적

- 유럽, 미국 등 선진시장의 경기불안 지속과 세계 시장의 정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메이저 기업들의 점유율 경쟁, 프리미엄 TV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경쟁 등이 맞물리며 가격 하락 지속

- 다만, 스마트3D 등 프리미엄 기능이 LED TV 중심으로 탑재되고 보급형 제품에는 주로 CCFL이 적용되면서 대형 LED TV 가격 하락세는 주춤

- 42" LED TV가격은 연초대비 -29.0%, 32" LED TV 는 -27.4%로 크게 하락

LCD TV / LED TV 가격 동향



자료 : Witsview, 2011.10.

3) 수출 동향

▶ 9월 TV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0.1% 증가한 6.2억 달러로 집계

○ 전체 수출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對남미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對EU, 對동유럽 수출의 하락폭이 크고, 對중국 수출이 하락 반전하였으며, 동월 TV 수출의 83.7%(5.2억 달러)를 차지하는 부분품 수출이 역성장하며 전체 TV 수출 증가율은 제자리걸음

※ 對남미 수출 증가율 : '11.7월 △43.7% → 8월 20.8% → 9월 23.7% → 10월 14.0%

※ 對미국 수출 증가율 : '11.7월 △12.7% → 8월 20.1% → 9월 136.1% → 10월 74.8%

※ 對중국 수출 증가율 : '11.7월 △52.7% → 8월 35.9% → 9월 9.0% → 10월 △10.3%

▶ (지역별) 미국(74.8%↑), 중남미(14.0%↑)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EU(△28.3%), 동유럽(△24.6%), 중국(△10.3%) 등에의 수출은 감소

○ 전월 성장 반전했던 對EU 수출이 다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이 지역 공급 거점인 對동유럽 수출도 함께 하락세로 전환

※ 對EU 수출 증가율 : '11.7월 △3.1% → 8월 △27.9% → 9월 3.2% → 10월 △28.3%

※ 對동유럽 수출 증가율 : '11.7월 △6.5% → 8월 △30.6% → 9월 2.5% → 9월 △24.6%

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10	11	12	'11.1	2	3	4	5	6	7	8	9	10
칼라TV (부분품 포함)	6.2 (26.9)	5.6 (21.8)	5.2 (3.0)	6.4 (18.9)	5.9 (16.0)	7.1 (11.1)	6.3 (△8.6)	6.0 (△8.4)	6.4 (△2.0)	8.6 (22.0)	7.7 (10.2)	7.8 (18.1)	6.2 (0.1)
LCD TV	0.6 (△11.7)	0.6 (△7.0)	0.5 (△16.3)	0.5 (4.4)	0.5 (46.5)	0.6 (39.5)	0.7 (33.3)	0.7 (25.7)	0.8 (11.8)	0.9 (48.6)	0.9 (59.3)	0.8 (39.9)	0.7 (35.1)
PDP TV	0.3 (43.3)	0.3 (17.6)	0.2 (5.6)	0.3 (31.0)	0.3 (56.1)	0.3 (28.1)	0.3 (8.2)	0.3 (△9.2)	0.2 (△12.8)	0.2 (△18.6)	0.3 (16.9)	0.3 (9.7)	0.3 (△14.4)
TV 부분품	5.3 (33.3)	4.8 (28.3)	4.5 (7.8)	5.6 (20.9)	5.2 (12.9)	6.2 (8.6)	5.3 (△13.0)	5.0 (△11.2)	5.3 (△3.2)	7.4 (21.6)	6.5 (5.8)	6.6 (16.4)	5.2 (△2.4)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시장 환경

▶ (HDD) 태국 홍수 발생으로 글로벌 HDD 및 PC 생산 차질 예상

○ 태국에는 전 세계 HDD 생산 공장의 약 25%가 분포해 있어 2012년 1분기까지 글로벌 HDD 공급의 차질과 그에 따른 PC, 서버, 스토리지 등의 출하량 감소 우려

※ iSuppli는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 글로벌 HDD 생산이 최대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
※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는 2012년 1분기까지 15~30% 정도의 HDD 생산 차질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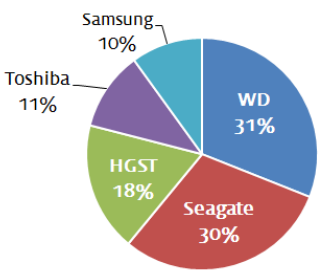
○ HDD의 전체 수요 중 약 60%가 PC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 1월까지 PC 생산량의 약 5~1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JP Morgan, 2011.10)

- 공급 감소로 HDD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Acer, Lenovo, Asustek 등 저마진 PC 전문 생산 업체(OEM 포함)의 수익 악화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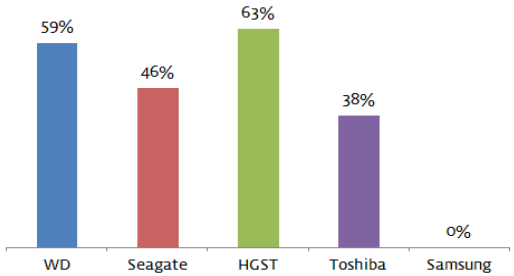
※ HDD는 PC 전체 부품 가격의 약 10%를 차지 : (데스크탑PC) 9%, (모바일PC) 10%

HDD 업체 세계 시장점유율 및 태국 생산 비중 [최근 12개월 기준]

<HDD 업체별 세계 시장점유율>



<HDD 업체별 태국 생산 비중>



자료 :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2011.10

▶ (PC) '11년 3분기 전 세계 PC 시장은 9,180만 대 출하,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인기로 PC 구매가 감소하는 등 소비자 PC 시장 약세로 글로벌 PC 시장의 성장이 전망치를 하회

- Gartner는 당초 '11년 3분기 세계 PC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예상치를 하회하는 3.2% 성장

※ IDC, '11년 3분기 세계 PC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3.6% 성장

○ HP는 '11년 3분기 전 세계 PC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Lenovo는 처음으로 2위에 등극

- (HP) 지난 8월 발표했던 PC 사업부 분사 계획을 전격 철회, 성장이 다소 둔화되고는 있지만 PC산업을 포기할 경우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

- (Lenovo) 최근 NEC와 협력하여 일본시장에 진출, 독일 Medion 인수를 통하여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등 유럽 시장 공략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25.2% 성장 (출하량 기준)

※ '11년 3분기 출하량기준 세계 시장점유율(%) : (HP) 17.7, (Lenovo) 13.5, (Dell) 11.6, (Acer) 10.6, (Asus) 6.2

○ 중남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PC 시장이 높은 성장을 기록한 반면, 유럽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PC 시장 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특히, 중남미 PC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9.6% 성장하여 1,000만 대 출하를 기록,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3,180만 대 출하, 전년 동기대비 6.0% 증가

- 세계 PC시장 점유율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 -2.9%의 마이너스 성장 기록

2011년 3분기 지역별 PC 시장규모 및 점유율

지역	시장규모(백만 대)			시장점유율	
	'10. 3Q	'11. 3Q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10. 3Q	'11. 3Q
Asia/Pacific	30.0	31.8	6.0%	33.7%	34.6%
EMEA	27.4	26.6	△2.9%	30.8%	29.0%
United States	17.6	17.8	1.1%	19.8%	19.4%
Latin America	8.3	10.0	19.6%	9.3%	10.8%
Japan	3.8	3.9	3.0%	4.2%	4.2%
Canada	2.0	1.9	△4.2%	2.2%	2.0%

자료 : Gartner, 2011.10

▶ (태블릿PC) '11년 태블릿PC 출하량은 약 6,300만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251% 성장 예상

○ IDC는 2010-15년 태블릿PC 시장이 연평균 50%(CAGR) 이상 성장하여, 2015년 에는 태블릿PC 출하량이 약 1억 3,5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지난 9월 Gartner는 2015년 태블릿PC 출하량을 3억 2,600만 대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음

2) 수출입 여건

▶ (HDD) 태국 홍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내 PC 생산 차질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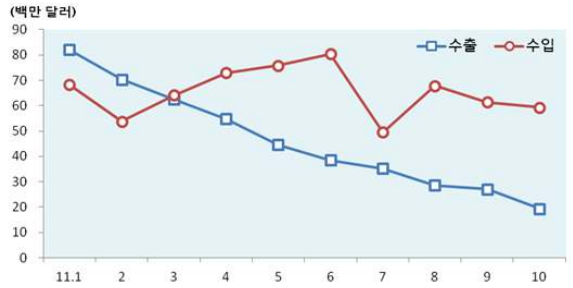
○ 4월 삼성전자의 HDD 사업부 매각 이후 국내 HDD 수출입 규모가 역전되면서 수출 감소 지속,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태국은 우리나라 HDD 수입 2위 국가. 국내 기업의 현재 HDD 재고 수준을 감안할 때 PC 생산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PC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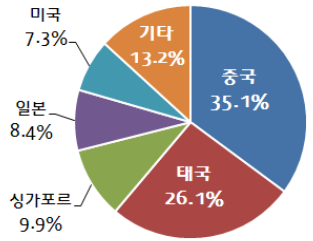
※ JP Morgan은 향후 추가적인 강수량과 상류 댐으로부터의 방출 수량을 고려했을 때 산업단지의 침수로 인한 영향은 약 3~4주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 HDD 수출입 추이 및 국가별 수입 비중

<HDD 수출입 추이, 월별금액 기준>



<HDD 수입 비중, '11년 1~10월 누적금액 기준>



자료 : NIPA

▶ (태블릿PC) 특허전쟁과 저가형 태블릿PC 업체들의 가격전쟁이 주요 화두로 등장

○ 10월 13일, 호주 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가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매 불가

- 삼성전자는 2014년까지 애플과의 부품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특허 소송도 강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국내 특허 관련 전문가들은 두 회사가 각각 통신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무기로 삼아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관측

○ 글로벌 시장의 태블릿PC 평균 가격이 300달러 대로 수렴

- Amazon의 '킨들파이어' 출시로 태블릿PC의 가격전쟁이 본격화되면서 HTC, Asus, Acer, Lenovo, RIM 등의 업체가 태블릿PC 가격을 인하

- 이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태블릿PC 499달러 가격정책에 당장의 변화를 꾀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로 하여금 적정 가격을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이패드'가 독점하고 있는 태블릿PC 시장에 변화를 야기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

업체별 태블릿PC 가격 동향

제조사	제품명	가격
HP	Touchpad (16GB)	499 $ → 99.99 $
Amazon	Kindle Fire (8GB)	199.99 $
RIM	Playbook(16GB)	499 $ → 299.99 $ (잠정) '2+1(2대 구매시 1대 무료)'
Lenovo	K1(32GB)	499 $ → 329.99 $ (잠정)
HTC	Flyer(16GB)	499 $ → 299.99 $
Asus	Eee Pad Transformer(16GB)	339 $
Acer	ICONIA(8GB)	329.99 $
Toshiba	Thrive(16GB)	399.99 $

자료 : ZDNet, 2011.10.10

3) 수출 동향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전년 동월대비 4.0% 하락한 7.0억 달러 기록

○ 전체 컴퓨터(부품포함) 수출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10월 태블릿PC 수출은 약 2.2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76% 성장을 기록

※ 태블릿PC 수출(억 달러) : ('11.3) 0.66→(3) 1.21→(4) 1.25 →(5) 0.71→(6) 1.41→(7) 1.70→(8) 2.00→(9) 2.66→(10) 2.24

○ 보조기억장치는 1.2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1.2% 감소

- HDD 수출 하락(0.2억 달러, △84.1%)이 지속되고 있으나, SSD는 1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대비 761% 상승

○ 증가세를 지속했던 프린터(1.0억 달러, △16.5%) 수출은 소폭 감소

○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역성장 했던 모니터 수출이 1.9억 달러를 기록, 터치스크린 모니터 등 소형 융합제품을 중심으로 3개월 연속 오름세

▶ (지역별)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흥시장의 수출 성장률이 감소로 전환

○ 수출 비중 상위 국가인 중국(홍콩 포함, 2.8억 달러, 47.0%↑), 미국(1.4억 달러, 23.8%↑)에 대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부문 수출이 두 자리 수 성장세 지속

○ ASEAN(11.8%↑)을 제외한 아프리카(△66.8%) 및 남미(△41.5%)지역과 인도(△6.6%) 등 성장세를 유지했던 신흥시장의 수출 성장률 감소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10	11	12	'11.1	2	3	4	5	6	7	8	9	10
컴퓨터 및 주변기기	7.3	7.8	6.5	5.7	4.9	6.4	5.9	5.5	6.3	6.7	7.2	7.3	7.0
	(11.0)	(18.3)	(△1.2)	(△6.3)	(△18.2)	(△6.7)	(△12.2)	(△11.8)	(△3.2)	(16.1)	(35.8)	(24.6)	(△4.0)
컴퓨터 (부품포함)	2.7	3.5	1.9	1.4	1.2	2.2	1.7	1.2	1.8	2.4	2.8	2.9	2.5
	(81.1)	(101.8)	(27.9)	(9.2)	(△15.8)	(45.8)	(22.9)	(△11.5)	(△0.6)	(87.2)	(142.6)	(82.6)	(△6.8)
보조 기억장치	1.5	1.3	1.3	1.5	1.2	1.0	1.3	1.4	1.4	1.4	1.3	1.2	1.2
	(△8.5)	(△20.7)	(△9.7)	(△20.5)	(△27.7)	(△42.1)	(△28.2)	(△12.2)	(8.5)	(8.2)	(△12.9)	(△18.5)	(△21.2)
프린터	1.1	0.9	1.0	1.1	0.8	1.1	1.1	1.0	1.1	1.1	1.0	1.2	1.0
	(21.0)	(18.0)	(8.7)	(22.1)	(△10.3)	(20.8)	(5.2)	(11.1)	(10.4)	(10.3)	(11.4)	(21.6)	(△16.5)
모니터	1.6	1.7	1.9	1.5	1.4	1.7	1.5	1.5	1.6	1.5	1.8	1.7	1.9
	(△26.2)	(△20.3)	(△22.3)	(△21.5)	(△18.0)	(△29.3)	(△33.0)	(△27.7)	(△27.0)	(△25.8)	(12.9)	(4.3)	(15.2)

6 수출 유망 품목 : DDI와 MCU

1) 세계 및 국내 시장 환경

▶ 세계 DDI(Display Driver IC) 시장은 '11년 전년대비 2.5% 감소한 62.8억 달러 예상

○ 출하량에서는 '11년과 '12년에, 전년대비 각각 3.8%, 8.1% 증가가 예상되지만 그 이후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i-Supply 2011)

※ DDI의 직접 수요시장인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이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출하량은 늘어나도 매출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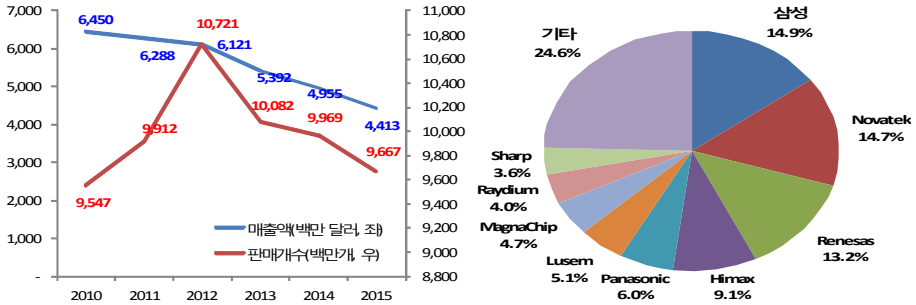
※ DDI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에 필수적인 핵심 구성요소로,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구동신호 및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패널에 전기신호(Multi High Voltage Level 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

○ DDI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는 '10년에도 시장점유율 14.9%로 1위를 유지했으며, 매그너칩이 4.7% 점유율로 7위에 랭크

○ 상위 5대 업체가 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하고 있으며, '11년 2분기 기준 1~4위까지는 변화가 없으나 Panasonic을 제치고 매그너칩이 5위로 부상

※ '11년 2Q 매출규모(백만 달러): 삼성전자(546), Novatek(528), Renesas(353), Himax(264), 매그너칩(158)

세계 DDI 시장



(가) 시장 규모 (나) 업체별 시장 점유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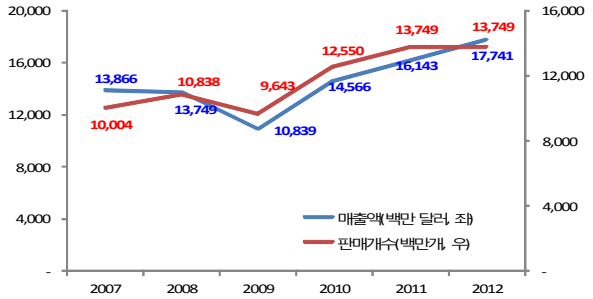
자료 : iSuppli 2011.

▶ 세계 MCU(Micro-controller Unit) 시장은 '11년 전년대비 10.8% 증가한 161억 달러, 판매개수로는 9.6% 증가한 138억 개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이 감소되었지만, e-Book 단말·스마트폰·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확산에 힘입어 '10년 이후 시장이 급격하게 再성장중

※ MCU는 단순 시간예약에서 특수한 기능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자제품의 다양한 특성을 제어하기 위한 전용 프로세서로서, ROM과 RAM 회로까지 내장, 사실상 초소형 컴퓨터의 역할을 하고 있어 '원칩(One Chip) 컴퓨터' 또는 '마이콤'으로 불림

세계 MCU 시장 추이



자료 : Credit Suisse 2011.

○ 현재 MCU 시장은 백색가전(토스터, 냉장고, 마이크로 웨이브)과 자동차 컨트롤 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8비트 제품(ASP 0.7~1.0$)과 하이엔드 임베디드 시스템 및 모바일 기기에 주로 채용되는 32비트 제품이(ASP 3~4$) 주류를 이루고 있고 '10년 전후로 32비트가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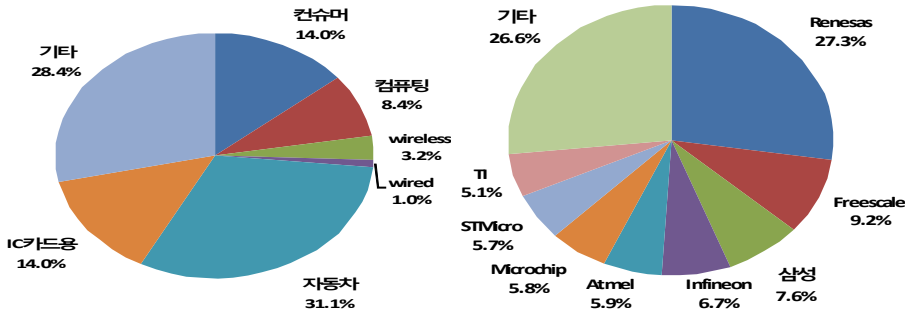
※ MCU 제품별 비중(2010년, KGI 2011.06): 4/8비트(37%), 16비트(25%), 32비트(38%)

※ 제품별 시장규모(100만 달러, '10년→'15년) : 8비트(5,528→6,489), 16비트(3,908→5,108), 32비트(5,692→11,645)

○ 용도별로는 자동차(31%), 컨슈머와 IC 카드(14%), 컴퓨팅(8%) 순이고, 엔진제어 장치·에어백·ABS 등 100여개 이상의 MCU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Renesas(일), Freescale(미), Infineon(독) 등 자동차용 MCU 시장에서의 3대 Major 업체들이 전체 MCU 시장에서도 상위에 랭크

※ 자동차용 MCU 시장 점유율('10년, 백만 달러, %, iSuppli 2011) : Renesas(2,236, 44.0), Freescale(1,113, 21.9), Infineon(473, 9.3), TI(364, 7.2), Fujitsu(287, 5.6)

용도별 및 업체별 시장 점유율(2010년)



(가) 용도별 (나) 업체별

자료 : iSuppli 2011.

○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08년 점유율 4.6%(8위)에서 '10년에는 점유율 7.6%(12.5억 달러)로 3위로 부상

※ 주요 용도별 삼성전자의 점유율('10년, 백만 달러, %): 컴퓨팅용 1위(473, 34.6), IC카드용 2위(531, 23.2)

2) 수출입 동향

▶ DDI의 수출은 '05년 약 5.6억 달러에서 '10년 12.0억 달러로 동 기간 16.5%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DDI 시장이 대폭 축소되었던 '09년 전년대비 6.4%나 감소했으나, '10년에는 31%의 급격한 증가세를 바탕으로 사상 최고액을 갱신

※ 올 10월 누적기준으로도 전년동기 대비 5.4% 증가한 10.4억 달러로 성장세를 이어감

○ 이러한 증가세를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년 3.9%에서 '09년 8.9%까지 상승하였다가 올 10월 누적기준 6.6%로 다소 주춤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중 주력 수출품목의 자리매김

▶ MCU 수출은 '05년 약 3.3억 달러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08년 10.3억 달러를 기록한 후 하향세로 전환하여 '10년 7.3억 달러로 감소

○ '10년의 경우 전년도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약 17.9% 증가한 7.3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올 10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4.2% 감소

※ MCU는 시스템반도체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9%로 시스템반도체 중 주력 수출품목의 하나였으나, 최근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올 10월 누적기준 비중도 3.0%로 감소하여 그 위상이 점차 약화

DDI와 MCU 수출 및 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1~10
수출	시스템반도체	14,184	13,127	12,289	16,093	1,5918
	Display Driver IC	702	1,150	1,094	1,204	1,044
	MCU	791	1,034	620	731	476
수지	시스템반도체	−6,738	−7,097	−5,415	− 2,349	44
	Display Driver IC	313	681	718	842	832
	MCU	604	325	331	293	166

주) MCU와 DDI는 해당 HSK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스템반도체 수출액 중에서 추정 산출

자료 : NIPA,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DDI의 수입은 '08년 4.7억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 10월 누적기준으로도 전년동기 대비 32.2% 줄어든 2.0억 달러 기록

○ 반면에 MCU의 수입은 매년 비교적 심한 증감폭을 보여주었는데, '10년에는 전년대비 51%나 늘어난 4.4억 달러를 나타냈으나 반대로 올 10월 누적으로는 전년대비 약 11.5% 감소한 3.0억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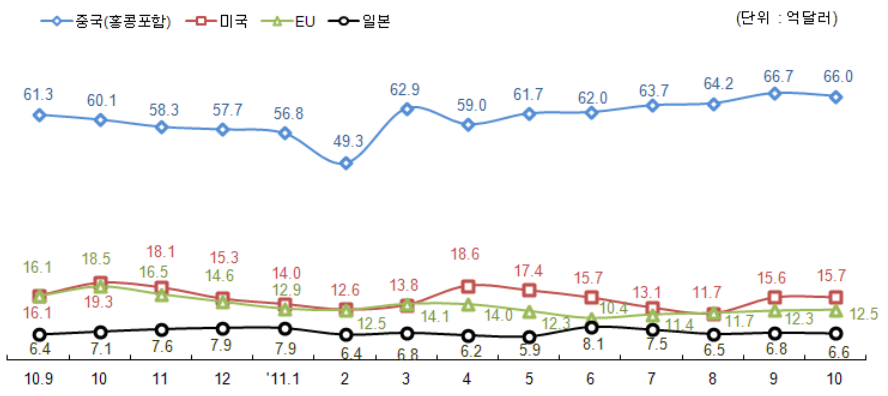
▶ DDI와 MCU는 시스템반도체 중 흑자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효자품목

○ DDI는 '04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그 폭을 점차 늘여나가 '10년에는 흑자폭이 8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금년 10월 누적으로 전년도의 흑자폭에 근접하고 있어 연말에는 10억 달러대에 육박할 전망

○ 반면에 MCU는 수출 감소경향과 맞물려 흑자폭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10년에는 3억 달러 아래로 줄어든데 이어, 올 10월 누적으로는 약 1.7억 달러를 기록 중이어서 연말에는 2억 달러 흑자에 못미칠 가능성도 존재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1 중국(홍콩포함) : 66.0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9.8% 증가

▶ 패널(21.8억 달러, 14.0%↑) 및 시스템반도체(10.7억 달러, 60.5%↑)의 수출 증가로 28개월 연속 증가

○ 반면, 휴대폰(4.1억 달러, △9.0%), 메모리반도체(9.4억 달러, △35.1%), TV부분품(0.6억 달러, △10.7%)은 감소세

중국(홍콩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10	11	12	'11.1	2	3	4	5	6	7	8	9	10
금액		60.1	58.3	57.7	56.8	49.3	62.9	59.0	61.7	62.0	63.7	64.2	66.7	66.0
(증감률)		(16.9)	(15.9)	(12.0)	(8.5)	(5.5)	(9.3)	(3.5)	(5.5)	(5.0)	(2.1)	(2.6)	(8.8)	(9.8)
	중국	47.4	45.6	44.0	43.0	38.3	47.4	44.3	47.4	48.1	49.6	48.7	50.6	48.9
		(19.1)	(17.0)	(6.6)	(2.4)	(4.9)	(3.5)	(△2.2)	(3.2)	(4.9)	(2.3)	(△1.0)	(7.0)	(3.2)
	홍콩	12.7	12.8	13.7	13.7	11.0	15.5	14.7	14.3	13.9	14.1	15.5	16.1	17.1
		(9.4)	(12.1)	(33.6)	(33.1)	(7.9)	(31.9)	(25.5)	(13.9)	(5.7)	(1.6)	(15.9)	(14.5)	(34.7)

2 미국 : 15.7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8.5% 감소

▶ 對미 최대 수출 품목인 휴대폰(8.1억 달러, △25.6%)을 비롯해, 반도체(1.7억 달러, △47.3%), 패널(0.2억 달러, △56.1%) 수출 감소로 미국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 기록

○ 반면, TV(0.5억 달러, 87.9%↑), 시스템반도체(0.4억 달러, 31.7%↑) 등 수출은 증가

미국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10	11	12	'11.1	2	3	4	5	6	7	8	9	10
금액	19.3	18.1	15.3	14.0	12.6	13.8	18.6	17.4	15.7	13.1	11.7	15.6	15.7
(증감률)	(42.2)	(33.0)	(24.2)	(15.6)	(△4.3)	(△3.3)	(26.0)	(17.2)	(△0.1)	(△21.2)	(△20.5)	(△2.8)	(△18.5)

3 EU : 12.5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32.0% 감소

▶ 휴대폰(2.1억 달러, △48.8%)을 비롯해, 패널(3.4억 달러, △17.9%), 반도체(2.0억 달러, △45.0%), TV부분품(1.2억 달러, △27.8%)등 주요 품목 수출 감소

EU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10	11	12	'11.1	2	3	4	5	6	7	8	9	10
금액	18.5	16.5	14.6	12.9	12.5	14.1	14.0	12.3	10.4	11.4	11.7	12.3	12.5
(증감률)	(3.2)	(△2.7)	(△3.1)	(△2.3)	(△8.9)	(△9.6)	(△9.6)	(△23.2)	(△34.8)	(△25.9)	(△31.3)	(△23.3)	(△32.0)

4 일본 : 6.6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6.0% 감소

▶ 휴대폰 수출(1.3억 달러, 148.6%↑)은 증가했으나, 반도체(2.4억 달러, △22.4%), 패널(0.3억 달러, △76.3%) 수출은 크게 감소

일본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10	11	12	'11.1	2	3	4	5	6	7	8	9	10
금액	7.1	7.6	7.9	7.9	6.4	6.8	6.2	5.9	8.1	7.5	6.5	6.8	6.6
(증감률)	(10.6)	(19.0)	(32.5)	(53.1)	(22.2)	(10.8)	(7.0)	(△5.1)	(19.7)	(1.1)	(△2.6)	(6.7)	(△6.0)

5 기타 국가

▶ 신흥 국가 중 동유럽(7.5억 달러, △23.5%)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수출이 증가

○ 중남미(7.2억 달러, 2.5%↑), 중동(3.8억 달러, 1.3%↑), ASEAN(14.0억 달러, 11.0%↑) 등 신흥시장 수출은 증가세 지속

3. 수입 및 수지 동향

▶ 10월 IT수입은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네트워크 장비 수입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2.7% 감소한 67.2억 달러를 기록

○ 최대 IT수입 품목인 전자부품(40.7억 달러, △0.2%) 및 컴퓨터 및 주변기기(7.2억 달러, △9.8%) 수입 감소

- 반면, 국내 통신망 투자확대로 네트워크장비 수입은 2.1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3.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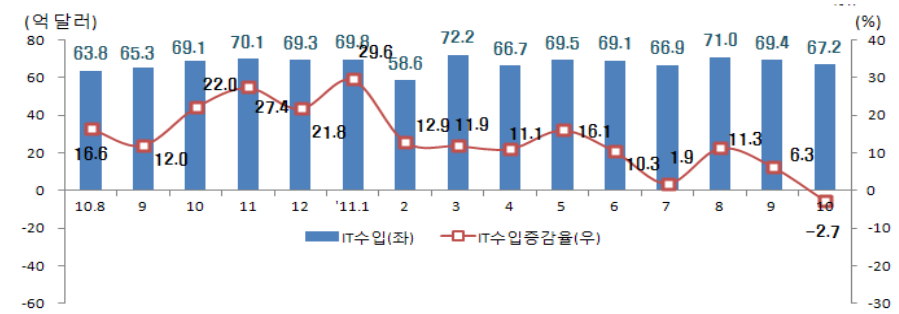
○ 중국(홍콩포함, 21.5억 달러, △17.9%), 일본(10.4억 달러, 5.4%), 싱가포르(5.0억 달러, △5.8%), 대만(8.5억 달러, △5.6%) 등 주요 수입국 모두 감소

'11.10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 수입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IT 응용·기반 기기		전체	
전체	40.7	(△0.2)	7.2	(△9.8)	9.7	(6.6)	67.2	(△2.7)
중국(홍콩포함)	10.8	(△21.2)	4.4	(△11.9)	2.1	(1.4)	21.5	(△17.9)
일본	6.9	(7.5)	0.4	(△14.4)	2.1	(7.8)	10.4	(5.4)
미국	5.0	(29.7)	0.4	(△30.8)	1.9	(1.8)	7.9	(14.9)
대만	6.8	(△2.6)	0.2	(14.6)	0.1	(9.2)	8.5	(△5.6)

최근 IT 수입 추이



▶ IT 무역수지는 70.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산업 흑자(42.9억 달러)창출에 기여

IT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10	11	12	'11.1	2	3	4	5	6	7	8	9	10
전체	63.4	25.9	40.9	25.8	21.3	25.5	43.6	21.1	18.6	46.7	3.7	15.6	42.9
IT산업	71.8	65.9	61.1	58.4	53.0	62.6	66.2	64.0	63.2	63.2	59.2	71.2	70.7

○ **(품목별)** 휴대폰(15.8억 달러), 패널(23.5억 달러), 반도체(15.4억 달러)는 흑자 기조 지속

주요 품목별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10	11	12	'11.1	2	3	4	5	6	7	8	9	10
휴대폰	21.7	21.6	17.8	17.9	15.5	15.7	19.1	19.7	17.8	18.9	17.3	16.4	15.8
반도체	16.5	13.5	14.7	12.3	12.3	17.0	15.5	14.3	16.5	11.4	12.7	18.0	15.4
패 널	23.0	21.4	21.0	20.2	17.9	21.5	20.8	21.4	20.1	19.6	19.4	21.9	23.5
TV	6.1	5.5	5.1	6.1	5.8	6.9	6.1	5.9	6.2	8.4	7.6	7.5	6.1

○ **(국가별)** 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 포함, 44.5억 달러), 미국(7.9억 달러), EU(7.9억 달러) 흑자는 모두 증가하였고, 對일 적자는 3.7억 달러로 감소

주요 국가별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10	11	12	'11.1	2	3	4	5	6	7	8	9	10
중국(홍콩)	33.9	31.3	33.3	29.7	27.7	34.6	34.0	34.9	36.0	39.8	37.4	41.4	44.5
EU	13.9	11.6	9.6	8.1	8.2	8.0	8.4	6.8	4.2	6.4	6.9	7.3	7.9
미국	12.5	11.4	7.9	7.8	7.3	7.4	12.4	10.0	9.0	6.0	4.0	7.8	7.9
일본	△2.8	△2.5	△2.8	△1.8	△2.6	△3.8	△3.4	△3.6	△2.3	△3.2	△4.4	△4.1	△3.7

4. 2011년 10월 I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T산업 연도별·월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2004년	2,538.4	997.1	31.4	2,244.6	542.3	17.6	293.8	454.8
2005년	2,844.2	1,082.5	8.6	2,612.4	592.7	9.3	231.8	489.9
2006년	3,254.6	1,191.1	10.0	3,093.8	646.8	9.1	160.8	544.3
2007년	3,714.9	1,301.0	9.2	3,568.5	697.3	7.8	146.4	603.7
2008년	4,220.1	1,311.6	0.8	4,352.7	735.2	5.4	−132.7	576.4
2009년	3,635.3	1,209.5	−7.8	3,230.8	620.2	−15.6	404.5	589.3
1/4	744.2	233.7	−30.1	714.2	127.1	−33.2	30.0	106.6
2/4	903.6	292.5	−16.2	739.7	153.7	−21.4	163.9	138.8
상반기	1,647.8	526.2	−23.0	1,453.9	280.8	−27.2	193.9	245.4
3/4	947.8	332.9	−6.9	848.5	170.7	−13.3	99.4	162.2
4/4	1,039.7	350.4	29.5	928.5	168.6	10.7	111.2	181.8
하반기	1,987.5	683.3	8.8	1,777.0	339.4	−2.9	210.5	343.9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1/4	1,010.8	344.1	47.2	981.6	170.3	34.0	29.3	173.8
2/4	1,202.4	384.0	31.3	1,056.3	182.6	18.8	146.1	201.4
상반기	2,213.2	728.1	38.4	2,037.9	352.9	25.6	175.4	375.2
3/4	1,163.2	403.9	21.3	1,057.0	194.8	14.1	106.2	209.2
4/4	1,287.5	407.4	16.3	1,157.3	208.6	23.7	130.2	198.8
하반기	2,450.6	811.3	18.7	2,214.3	403.3	18.8	236.4	408.0
1월	307.4	110.3	59.5	315.4	53.9	31.2	−8.0	56.4
2월	330.4	106.7	39.0	310.4	51.9	31.8	20.0	54.8
3월	373.1	127.2	44.8	355.8	64.5	38.2	17.3	62.6
4월	393.0	125.9	33.3	355.2	60.0	17.8	37.8	65.9
5월	388.9	127.8	32.5	348.5	59.9	22.0	40.3	67.9
6월	420.5	130.2	28.3	352.5	62.7	16.7	67.9	67.6
7월	404.2	135.5	24.7	354.2	65.7	13.8	50.0	69.9
8월	364.8	133.9	26.4	352.7	63.8	16.6	12.1	70.1
9월	394.1	134.5	13.7	350.0	65.3	12.0	44.1	69.2
10월	**433.4**	**141.0**	**17.2**	**370.0**	**69.1**	**22.0**	**63.4**	**71.8**
11월	412.6	136.0	16.0	386.7	70.1	27.4	25.9	65.9
12월	441.5	130.4	15.5	400.6	69.3	21.8	40.9	61.1
2011년	4,626.4	1,312.1	3.1	4,361.5	680.5	10.3	264.9	631.6
1/4	1,309.9	374.7	8.9	1,237.3	200.6	17.8	72.6	174.0
2/4	1,427.2	398.6	3.8	1,343.8	205.3	12.5	83.3	193.3
상반기	2,737.1	773.3	6.2	2,581.1	406.0	15.0	156.0	367.3
3/4	1,415.7	400.9	−0.8	1,349.7	207.3	6.4	66.0	193.6
1월	444.7	128.2	16.3	418.9	69.8	29.6	25.8	58.4
2월	384.7	111.6	4.7	363.4	58.6	12.9	21.3	53.0
3월	480.4	134.8	6.0	455.0	72.2	11.9	25.5	62.6
4월	485.4	132.9	5.5	441.9	66.7	11.1	43.6	66.2
5월	474.3	133.5	4.5	453.1	69.5	16.1	21.1	64.0
6월	467.5	132.3	1.6	448.8	69.1	10.3	18.6	63.2
7월	489.7	130.1	−4.0	442.9	66.9	1.9	46.7	63.2
8월	457.8	130.2	−2.8	454.1	71.0	11.3	3.7	59.2
9월	468.3	140.6	4.5	452.7	69.4	6.3	15.6	71.2
10월	**473.6**	**137.9**	**−2.2**	**430.7**	**67.2**	**−2.7**	**42.9**	**70.7**

주요 IT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10월 당월		1~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153,941	27.3	100.0	13,790	-2.2	131,207	3.1	100.0
정보통신기기	138,756	26.4	90.1	11,878	-6.4	115,014	0.1	87.7
○전자부품	91,302	45.6	59.3	7,954	-1.0	74,224	-2.8	56.6
- 반도체	50,707	63.4	32.9	4,351	-4.5	41,765	-1.3	31.8
· 메모리반도체	28,470	79.4	18.5	1,814	-26.0	20,190	-16.9	15.4
· 시스템반도체	16,093	30.9	10.5	2,030	34.8	15,914	22.4	12.1
- 평판디스플레이	33,772	27.3	21.9	2,921	1.1	26,199	-7.7	20.0
- 전자관	279	-11.4	0.2	15	-5.3	177	-27.3	0.1
- 수동부품	1,599	39.0	1.0	140	2.3	1,369	1.8	1.0
- 접속부품	4,201.5	32.6	2.7	436	21.4	3,943	13.6	3.0
- 기타전자부품	79	27.2	0.1	9	51.6	91	39.4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7,708	10.4	5.0	704	-4.0	6,298	0.4	4.8
- 컴퓨터	1,009	114.5	0.7	185	-0.6	1,175	80.4	0.9
- 주변기기	5,418	2.9	3.5	431	-1.6	4,127	-9.7	3.1
· HDD	1,405	2.9	0.9	19	-84.1	463	-62.2	0.4
· 프린터	1,142	20.2	0.7	92	-16.5	1,029	8.0	0.8
· 모니터	2,307	-7.9	1.5	187	15.2	1,614	-17.2	1.2
- 컴퓨터부품	1,091	1.8	0.7	69	-20.2	834	-7.4	0.6
- SW 및 콘텐츠	191	10.4	0.1	19	-15.1	162	6.7	0.1
○통신 및 방송기기	27,773	-10.3	18.0	2,190	-24.6	23,914	7.5	18.2
- 통신기기	27,526	-10.8	17.9	2,169	-24.3	23,719	7.7	18.1
· 유선통신기기	1,328	26.2	0.9	89	-25.5	883	-11.1	0.7
· 무선통신기기	26,198	-12.1	17.0	2,079	-24.3	22,835	8.5	17.4
휴대폰(부분품 포함)	24,888	-13.2	16.2	1,912	-28.0	21,692	8.6	16.5
- 방송국용 기기*	247	111.1	0.2	21	-45.5	196	-7.6	0.1
○영상 및 음향기기	10,486	30.4	6.8	874	-1.6	9,227	4.4	7.0
- 영상기기	8,025	39.9	5.2	659	-2.3	7,255	6.4	5.5
·TV	7,452	42.6	4.8	620	0.1	6,838	7.4	5.2
LCD TV	649	15.6	0.4	74	35.1	724	33.5	0.6
TV 부분품	6,460	49.4	4.2	519	-2.4	5,821	5.3	4.4
- 음향기기	1,082	7.7	0.7	105	15.2	956	4.5	0.7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79	6.2	0.9	110	-9.9	1,015	-8.1	0.8
· 셋탑박스	762	12.2	0.5	53	-18.1	466	-23.4	0.4
○광자기매체	1,487	34.8	1.0	157	17.6	1,351	15.3	1.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185	36.3	9.9	1,912	36.1	16,192	30.4	12.3
○의료정밀광학기기	3,946	51.6	2.6	478	32.6	4,193	34.8	3.2
○가정용 기기	4,510	21.2	2.9	450	9.1	4,164	9.2	3.2
· 냉장고	2,318	29.9	1.5	200	-8.0	2,169	10.7	1.7
· 세탁기	685	5.8	0.4	53	-11.7	559	-3.8	0.4
· 에어컨	286	11.9	0.2	17	-2.4	315	23.7	0.2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6.9	0.3	36	-16.3	397	11.3	0.3
○전기 장비	6,284	40.7	4.1	948	61.1	7,438	44.7	5.7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084	28.3	2.7	426	16.4	4,103	21.4	3.1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10월 당월		1~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75,619	21.9	100.0	6,723	-2.7	68,051	10.3	100.0
정보통신기기	65,144	21.4	86.1	5,752	-4.2	58,293	9.6	85.7
○전자부품	44,363	18.8	58.7	4,070	-0.2	38,938	6.8	57.2
- 반도체	31,137	17.0	41.2	2,813	-3.3	27,236	6.5	40.0
· 메모리반도체	6,048	46.2	8.0	512	-25.7	5,720	18.1	8.4
· 시스템반도체	18,442	4.1	24.4	1,746	4.3	15,876	4.6	23.3
- 평판디스플레이	6,496	21.7	8.6	569	-3.7	5,564	3.9	8.2
- 전자관	118	-24.4	0.2	9	26.9	70	-29.4	0.1
- 수동부품	1,707	28.3	2.3	168	13.9	1,503	6.0	2.2
- 접속부품	3,685	26.0	4.9	397	30.9	3,408	12.2	5.0
- 기타전자부품	132	52.1	0.2	26	115.0	216	100.8	0.3
○컴퓨터 및 주변기기	9,347	29.5	12.4	725	-9.8	7,833	3.2	11.5
- 컴퓨터	3,078	57.4	4.1	252	-6.9	2,757	11.6	4.1
- 주변기기	3,429	19.8	4.5	289	2.2	3,032	8.2	4.5
· HDD	770	19.9	1.0	59	6.9	654	3.1	1.0
· 프린터	1,066	23.8	1.4	103	8.2	1,023	17.1	1.5
· 모니터	1,002	17.2	1.3	67	-17.4	763	-6.5	1.1
- 컴퓨터부품	2,248	22.4	3.0	133	-31.9	1,554	-16.0	2.3
- SW 및 콘텐츠	592	5.5	0.8	51	-7.7	491	4.9	0.7
○통신 및 방송기기	6,892	25.2	9.1	621	-13.0	7,912	46.2	11.6
- 통신기기	6,756	25.0	8.9	601	-14.3	7,799	47.1	11.5
· 유선통신기기	1,504	7.4	2.0	154	20.6	2,087	75.0	3.1
· 무선통신기기	5,252	31.2	6.9	447	-22.1	5,712	39.0	8.4
휴대폰(부분품 포함)	4,279	37.2	5.7	328	-32.5	4,288	29.8	6.3
- 방송국용 기기*	136	33.5	0.2	20	64.8	113	1.4	0.2
○영상 및 음향기기	2,890	11.4	3.8	215	-9.3	2,310	-3.9	3.4
- 영상기기	940	9.1	1.2	65	-24.2	740	-5.4	1.1
·TV	198	1.8	0.3	15	1.1	169	0.4	0.2
LCD TV	17	27.8	0.0	4	188.0	47	236.0	0.1
TV 부분품	152	1.8	0.2	9	-20.7	117	-10.8	0.2
- 음향기기	1,368	8.7	1.8	116	4.8	1,165	3.0	1.7
- 기타 영상음향기기	581	23.1	0.8	33	-16.3	405	-17.4	0.6
· 셋탑박스	108	298.8	0.1	10	34.3	108	21.9	0.2
○광자기매체	1,652	67.9	2.2	122	-27.3	1,300	-1.2	1.9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0,476	25.0	13.9	972	6.6	9,757	14.9	14.3
○의료정밀광학기기	7,101	31.5	9.4	649	4.0	6,570	14.1	9.7
○가정용 기기	899	19.6	1.2	92	18.3	947	30.9	1.4
· 냉장고	83	19.5	0.1	8	19.0	76	7.4	0.1
· 세탁기	71	32.7	0.1	5	-15.6	49	-20.0	0.1
· 에어컨	32	14.2	0.0	2	45.4	86	212.3	0.1
○사무용 기기 및 장비	136	-20.7	0.2	8	-7.3	84	-27.6	0.1
○전기 장비	2,339	13.8	3.1	222	10.5	2,157	13.9	3.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166	12.5	1.5	115	12.1	1,119	20.0	1.6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10월 당월			10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IT 전체	153,941	75,619	78,322	13,790	6,723	7,067	63,156
정보통신기기	138,756	65,144	73,612	11,878	5,752	6,127	56,721
○전자부품	91,302	44,363	46,939	7,954	4,070	3,884	35,286
- 반도체	50,707	31,137	19,570	4,351	2,813	1,539	14,529
· 메모리반도체	28,470	6,048	22,422	1,814	512	1,302	14,470
· 시스템반도체	16,093	18,442	-2,349	2,030	1,746	285	37
- 평판디스플레이	33,772	6,496	27,276	2,921	569	2,352	20,635
- 전자관	279	118	161	15	9	6	108
- 수동부품	1,599	1,707	-108	140	168	-27	-135
- 접속부품	4,202	3,685	517	436	397	38	536
- 기타전자부품	79	132	-53	9	26	-16	-125
○컴퓨터 및 주변기기	7,708	9,347	-1,639	704	725	-21	-1,535
- 컴퓨터	1,009	3,078	-2,069	185	252	-67	-1,582
- 주변기기	5,418	3,429	1,989	431	289	142	1,095
· HDD	1,405	770	635	19	59	-40	-191
· 프린터	1,142	1,066	76	92	103	-11	6
· 모니터	2,307	1,002	1,304	187	67	120	851
- 컴퓨터부품	1,091	2,248	-1,157	69	133	-64	-720
- SW 및 콘텐츠	191	592	-401	19	51	-32	-329
○통신 및 방송기기	27,773	6,892	20,881	2,190	621	1,569	16,003
- 통신기기	27,526	6,756	20,769	2,169	601	1,568	15,920
· 유선통신기기	1,328	1,504	-176	89	154	-65	-1,204
· 무선통신기기	26,198	5,252	20,945	2,079	447	1,632	17,124
휴대폰(부분품 포함)	24,888	4,279	20,610	1,912	328	1,584	17,404
- 방송국용 기기*	247	136	111	21	20	2	83
○영상 및 음향기기	10,486	2,890	7,596	874	215	659	6,917
- 영상기기	8,025	940	7,085	659	65	594	6,515
·TV	7,452	198	7,254	620	15	605	6,668
LCD TV	649	17	631	74	4	70	676
TV 부분품	6,460	152	6,308	519	9	510	5,705
- 음향기기	1,082	1,368	-286	105	116	-11	-209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79	581	798	110	33	76	611
· 셋탑박스	762	108	654	53	10	43	358
○광자기매체	1,487	1,652	-165	157	122	35	51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185	10,476	4,710	1,912	972	940	6,435
○의료정밀광학기기	3,946	7,101	-3,155	478	649	-172	-2,376
○가정용 기기	4,510	899	3,611	450	92	358	3,217
· 냉장고	2,318	83	2,235	200	8	192	2,093
· 세탁기	685	71	614	53	5	49	509
· 에어컨	286	32	254	17	2	14	229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136	309	36	8	28	312
○전기 장비	6,284	2,339	3,945	948	222	726	5,28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084	1,166	2,917	426	115	312	2,985

주요 지역별 IT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10월 당월		1~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53,941	27.3	100.0	13,790	-2.2	131,207	3.1	100.0
○ 아시아	99,239	35.2	64.5	9,422	8.0	88,371	7.8	67.4
- 중 국	54,319	38.1	35.3	4,894	3.2	46,627	2.8	35.5
- 홍 콩	15,010	39.0	9.8	1,709	34.7	14,588	18.0	11.1
- 일 본	7,851	18.7	5.1	664	-6.0	6,883	9.4	5.2
- ASEAN	13,809	29.4	9.0	1,397	11.0	12,532	11.2	9.6
· 싱가폴	5,643	20.2	3.7	506	-5.6	4,805	3.9	3.7
· 인 니	952	8.6	0.6	63	-8.4	735	-8.5	0.6
· 말 련	2,415	23.1	1.6	165	-24.4	1,767	-13.4	1.3
· 태 국	1,136	14.5	0.7	87	-12.6	1,002	6.3	0.8
- 대 만	6,420	45.7	4.2	567	2.3	5,999	15.1	4.6
- 인 도	1,537	16.4	1.0	154	-6.4	1,425	13.7	1.1
○ 북미	19,588	16.8	12.7	1,691	-16.7	15,786	-1.4	12.0
- 미 국	18,508	15.9	12.0	1,573	-18.5	14,829	-2.2	11.3
- 캐나다	879	39.3	0.6	93	8.1	787	15.9	0.6
○ 유럽	21,132	12.6	13.7	1,450	-30.8	14,367	-18.1	10.9
- EU	18,787	10.3	12.2	1,255	-32.0	12,404	-20.9	9.5
· 영 국	1,496	-13.0	1.0	92	-42.9	935	-22.2	0.7
· 독 일	3,302	13.5	2.1	225	-24.9	2,148	-22.7	1.6
· 프랑스	931	-23.9	0.6	56	-58.2	614	-13.4	0.5
· 이탈리아	755	28.7	0.5	44	-58.2	511	-10.4	0.4
- 러시아	1,535	43.2	1.0	128	-19.9	1,133	-6.7	0.9
○ 중동	3,876	28.6	2.5	379	1.3	3,815	21.8	2.9
- 사우디	429	6.7	0.3	31	-1.2	523	53.3	0.4
- UAE	1,269	45.4	0.8	97	-22.8	1,237	27.1	0.9
○ 중남미	8,420	13.3	5.5	719	2.5	7,418	1.8	5.7
- 브라질	2,429	21.0	1.6	195	3.7	2,463	15.8	1.9
- 멕시코	5,188	5.9	3.4	440	-0.9	4,110	-7.9	3.1
- 칠 레	195	5.1	0.1	19	-2.1	191	11.2	0.1
○ 대양주	1,020	2.8	0.7	76	-30.4	882	10.0	0.7
- 호 주	944	4.2	0.6	69	-30.9	794	7.3	0.6
○ 아프리카	635	11.6	0.4	51	-11.8	553	5.7	0.4
○ 브 릭 스	59,821	36.8	38.9	5,370	2.2	51,647	3.4	39.4

주요 지역별 IT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10월 당월		1~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75,619	21.9	100.0	6,723	-2.7	68,051	10.3	100.0
○ 아시아	60,819	23.7	80.4	5,330	-5.0	54,471	9.7	80.0
- 중 국	26,311	32.4	34.8	2,102	-15.7	24,299	13.8	35.7
- 홍 콩	950	32.9	1.3	51	-60.3	911	17.0	1.3
- 일 본	11,952	15.7	15.8	1,036	5.4	10,175	3.1	15.0
- ASEAN	11,858	4.3	15.7	1,020	-7.7	10,245	5.3	15.1
· 싱가폴	5,255	-11.1	6.9	500	-5.8	4,645	9.3	6.8
· 인 니	415	40.5	0.5	36	0.0	382	12.4	0.6
· 말 련	2,689	18.8	3.6	207	-13.5	2,298	3.0	3.4
· 태 국	1,556	19.8	2.1	115	-14.0	1,356	5.8	2.0
- 대 만	9,698	41.7	12.8	846	-5.6	8,517	8.2	12.5
- 인 도	43	14.4	0.1	3	-34.9	38	5.4	0.1
○ 북미	8,068	17.7	10.7	821	14.1	7,191	9.3	10.6
- 미 국	7,660	19.1	10.1	786	14.9	6,872	10.0	10.1
- 캐나다	234	4.5	0.3	17	-13.6	171	-8.9	0.3
○ 유럽	5,733	14.0	7.6	501	0.2	5,548	19.0	8.2
- EU	5,134	12.9	6.8	468	3.0	5,173	25.0	7.6
· 영 국	391	10.6	0.5	36	8.0	381	19.3	0.6
· 독 일	2,341	20.8	3.1	206	-3.1	2,107	11.1	3.1
· 프랑스	660	-9.8	0.9	44	-19.6	546	2.2	0.8
· 이탈리아	260	15.7	0.3	19	-6.4	219	2.3	0.3
- 러시아	89	128.7	0.1	4	96.9	15	-82.2	0.0
○ 중동	434	-12.4	0.6	24	-23.8	280	-18.6	0.4
- 사우디	1	449.8	0.0	0	38.0	1	-44.4	0.0
- UAE	4	-37.1	0.0	1	253.6	11	179.9	0.0
○ 중남미	441	21.5	0.6	37	-9.6	438	23.7	0.6
- 브라질	16	-6.8	0.0	3	282.1	22	98.0	0.0
- 멕시코	420	22.1	0.6	34	-13.8	410	20.6	0.6
- 칠 레	2	236.2	0.0	0	-91.8	1	-4.4	0.0
○ 대양주	107	16.3	0.1	10	7.5	109	27.9	0.2
- 호 주	95	15.7	0.1	9	4.7	97	28.4	0.1
○ 아프리카	17	58.0	0.0	1	0.5	10	-35.5	0.0
○ 브 릭 스	26,459	32.6	35.0	2,112	-15.6	24,374	13.5	35.8

주요 지역별 IT 수지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10월 당월			10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120,949	62,020	58,929	13,790	6,723	7,067	63,156
○ 아시아	73,397	49,174	24,223	9,422	5,330	4,093	33,899
- 중 국	39,344	19,868	19,476	4,894	2,102	2,791	22,327
- 홍 콩	10,802	715	10,087	1,709	51	1,658	13,677
- 일 본	6,617	10,333	-3,716	664	1,036	-371	-3,292
- ASEAN	10,673	11,369	-696	1,397	1,020	376	2,287
· 싱가폴	4,693	5,912	-1,219	506	500	7	160
· 인 니	876	295	581	63	36	27	353
· 말 련	1,963	2,263	-300	165	207	-42	-531
· 태 국	992	1,299	-306	87	115	-29	-354
- 대 만	4,407	6,845	-2,438	567	846	-278	-2,519
- 인 도	1,320	38	1,283	154	3	151	1,387
○ 북미	16,764	6,855	9,909	1,691	821	870	8,596
- 미 국	15,973	6,433	9,540	1,573	786	787	7,957
- 캐나다	631	224	407	93	17	76	617
○ 유럽	18,759	5,029	13,730	1,450	501	949	8,819
- EU	17,037	4,548	12,489	1,255	468	787	7,231
· 영 국	1,718	353	1,365	92	36	55	555
· 독 일	2,910	1,938	972	225	206	19	41
· 프랑스	1,224	731	492	56	44	12	68
· 이탈리아	587	225	362	44	19	25	292
- 러시아	1,071	39	1,033	128	4	124	1,118
○ 중동	3,013	495	2,518	379	24	355	3,534
- 사우디	402	0	402	31	0	31	522
- UAE	873	7	866	97	1	95	1,226
○ 중남미	7,435	363	7,072	719	37	682	6,980
- 브라질	2,008	17	1,991	195	3	192	2,441
- 멕시코	4,897	344	4,553	440	34	406	3,700
- 칠 레	185	0	185	19	0	19	190
○ 대양주	992	92	900	76	10	66	774
- 호 주	906	83	823	69	9	60	697
○ 아프리카	569	11	558	51	1	51	543
○ 브 릭 스	43,744	19,962	23,782	5,370	2,112	3,258	27,273